

무등산, 예술과 춘설차가 빛나는 인문여행지로 탈바꿈

문체부 야행관광 국비사업, 의재유적·춘설차발 재해석
자연·역사·예술·차를 잇는 무등산 인문관광 거점 도약

광주 동구는 무등산국립공원 일원을 자연·역사·예술·차(茶) 문화가 어우러진 '체류형 예술관광지'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국비 지원 사업인 '예술점포 야행관광 공간조성 사업'을 통해 의재 허백련 선생의 문화 예술정신과 무등산 고유의 차 문화인 '춘설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무등산권을 한국형 인문·예술관광의 대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관 정비를 넘어, 자연 속에서 낮과 밤을 아우르는 예술·차 체험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연과 예술이 만난 산, 무등산
무등산은 자연과 더불어 사유와 실천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온 인문학적 장소이다.

특히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 화백은 근현대 남종화의 거장으로, 무등산 자락에 터를 잡고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며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실천한 예술가다. 그에게 무등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창작과 사유, 교육과 일상이 한데 어우러진 '실천의 공간'이었으며, 오늘날의 의재문화유적지는 이러한 예술관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 장소로 평가된다.

무등산은 의재 허백련이 활동하기 이전부터 지식인, 종교인들이 자연 속에서 사유하고 교류했던 인문학적 공간이었다.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2·8 독립운동에 참여한 석아 최원순은 격동의 시대 현실을 성찰하는 지식인의 시선으로 무등산과 마주했고, 오방 최홍중 목사는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실천을 바탕으로 자연 속 수양과 사색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처럼 다양한 인문 자원이 공존해 온 무등산은, 의재문화유적지를 통해 개인의 예술을 넘어 지역이 축적해 온 인문학적 가치와 공간적 의미를 보여준다.

동구는 그동안 '무등산 인문축제'를

비롯해 일상 속 인문 자산을 시민의 삶과 관광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3년간 이어진 '무등산 인문축제'는 무등산의 역사·문화·자연을 함께 나누는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며, 일회성 행사를 넘어 축적 가능한 인문·예술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문도시 정책의 연장선에서, 무등산이 품고 있는 자연·예술·문화의 가치를 공간 기반의 체류형 예술관광 콘텐츠로 구현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다.

●1,200년을 이어온 차 문화, 춘설차의 재발견

무등산 '춘설차'는 이른 봄 눈이 채 녹기 전 채엽한 찻잎으로 우려낸 전통 차로, 은은한 향과 깊은 맛으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져 왔다. 일교차가 크고 안개가 잦은 무등산 자락은 차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통일신라 헌안왕 4년(860년대) 증심사 창건 당시 스님들이 심은 야생차에서 이 일대 차밭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등 우리나라 차 재배 역사에서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공간이다.

의재 허백련에게 차는 단순한 기호 식품을 넘어 예술적 사유와 수양의 매개체였다. 그는 차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고 제자들과 교류하며 예술 세계를 확장했고, 자연 속에서 차와 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이러한 태도는 춘설차밭을 단순한 생산지가 아닌 삶·예술·사유가 어우러진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커피 문화 확산과 전통 차밭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춘설차 밭은 점차 사라졌고, 무등산의 차 문화 역시 희미해져 가고 있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라져 가던 춘설차 밭을 단순 복원을 넘어 '현대적 차 문화 공간'으로 재해석한다. 의재문화 유적과 춘설차 밭을 함께 되살려, 차와 예술이 공존하던 무등산의 시간을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무등산 자연·예술·차를 잇는 공간 구상



동구는 2024년 5월 무등산의 자연과 예술, 차 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의재문화유적지와 춘설차밭 일원을 두 축으로 삼아 공간을 구성했다.

의재문화 유적지는 기존 건축물과 외부 공간을 하나의 서사적 동선으로 엮어, 방문객이 의재 허백련 선생의 예술정신과 차 문화를 단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춘설차 밭은 전통 차밭 복원을 통해 자연경관 가치를 회복하는 동시에 의재미술관·증심사와 연계를 강화해, 이동 과정 자체가 자연·예술·차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여정이 되도록 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과 미디어 연출을 더해 낮과는 다른 분위기의 몰입형 야간 예술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향성은 농업학교 시절 축사로 쓰이던 건물을 정비한 복합 공간으로, 역사적 흔적을 살리면서 의재의 예술 세계와 차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카페, 소규모 전시, 지역 차·문화상품 판매 기능을 한데 모은 체류형 거점으로 조성된다. 방문객은 이곳에서 차와 휴식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의재의 작품과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춘설차공방은 의재가 차를 만들던 공간을 정비해 물레방아를 보전·활용하고, 전통 제다 과정 전시와 계절별 차 만들기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춘설차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히 전달한다. 관공대는 과거 손님을 맞아 차를 대접하던 사랑방 겸 다실을 재해석한 공간으로, 차 명상과 사색, 소규모 차담·음점이 가능한 무등산 인문·정신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되며, 자연을 바라보며 차를 매개로 휴식과 교류가 이뤄지는 의재문화유적지의 정신적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의재문화유적지의 진입 교량인 문향교는 일상에서 예술 공간으로 넘어가는 '전이'를 상징하는 파빌리온형 구조로 조성돼, 다리를 건너는 동안 자연을 조망하며 서서히 의재의 세계로 진입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관공대 뒤편 숲속 쉼터와 기존 건축물·춘설차밭을 잇는 보행 동선·조경 계획을 통해 무등산의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살린 자연 친화적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춘설차 밭 복원은 우리나라 근대 차 재배의 출발점이자 의재가 차 문화를 실천했던 장소의 역사성을 되살리는 작업으로, 역사 기록과 전통 재배 방식을 반영한 단계적 복원과 의재문화유적지와 연결되는 산책 동선을 통해 차·예술·사유를 함께 경험하는 열린 문화경관으로 재구성된다. 방문객은 복원된 차밭을 거닐며 무등산의 자연과 의재의 예술정신, 차 문화의 깊이를 함께 체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의재문화유적지 복원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동구 최초로 '지명설계' 방식의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국내 대표급 건축가 6인을 초청해 자연 환경 보존과 문화유산 해석을 공동 주제로 한 다양한 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11월 심사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등으로 잘 알려진 최욱 건축가의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 당선작은 의재의 예술정신과 무등산 자연을 절제된 공간 언어로 구현하면서도 유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의재문화유적지 일대가 역사성과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오늘의 관람객이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현대적 예술·관광 공간으로 재탄생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명수 기자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국립박물관 운영 우수성 재입증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우수기관 현판 수여

전라남도 나주시가 운영하는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전통 염색 문화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운영 역량과 공공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소장품 관리, 전시·교육 프로그램, 관람객 서비스, 시설 운영 등 박물관 운영 전반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2년마다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이번 평가에서 전통 염색 문화 분야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춘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박물관은 도내 대표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재확인했으며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와 공공 문화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이사장은 "4회 연속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선정은 '2026 나주방문의해'를 맞아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나주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강진아트홀 설날특집 가족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상연

매일 두 번째 토요일 '강진아트홀 가는 날' 설 연휴에도 운영

강진아트홀은 오는 2월 14일 오후 3시, 설 연휴를 맞아 3대가 함께 즐기는 공연 '헨젤과 그레텔-과자집의 비밀'을 상연한다.

이번 공연은 지혜와 용기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그림형제 동화 원작을 가족뮤지컬 형태로 재편성해 전 연령대 아이들이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연출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1월 공연 관람객이 강진군민 360명(52%), 광주전남 332명(48%)으로 총 집계됐다"며 "지역민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관광과 문화를 접목한 매력 있는 코스를 제공하며 강진을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유료화 전환 후 첫 좌석 매진을 달성하며 병연 헌찬 출발을 신고한 강진아트홀은 매일 두 번째 토요일을



'강진아트홀 가는 날'로 지정, '오즈의 마법사', '어린이 캣츠', '피노키오의 모험', '신데렐라', '어린이 연극-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을 연이어 상연할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국민 내로남 다를 농어촌

보다나온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